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사순 제3주일

입당 : 119 파견 : 122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시편 103, 1-2, 3-4, 6-7, 8, 11)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 게 자애가 넘치시네. ◎

◎ The Lord is kind and merciful.

(Psalms 103:1-2, 3-4, 6-7, 8, 11)

-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my being,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
- He pardons all your iniquities, heals all your ills, He redeems your life from destruction, crowns you with kindness and compassion. ◎
- The LORD secures justice and the rights of all the oppressed. He has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and his deeds to the children of Israel. ◎
- Merciful and gracious is the LORD,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kindness. For as the heavens are high above the earth, so surpassing is his kindness toward those who fear him. ◎

빛과 열 (2)

불은 몸을 덥혀주면서 우리 안으로 스며들지만 그 자체는 그대로 머문다. 사랑도 그러하다. 열에 의한 하느님 불길과 의 일치가 있으면서도 불길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선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안에 선함이 깃들인다. 선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내 것이 되며 또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만큼 내 몫이 되지만, 내가 선 그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는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 또한 그 안에 머무신다”고 성 요한은 말했다. 하느님을 알아뵈고 사랑함은 바로 하느님과 하나됨이다. 그러기에 영복도 하느님을 뵈고 사랑함에 있는 것이다. 영복이란 주리며 애타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익한 깨달음이며 더없는 흡족과 포만이다. 앞서 불이 영혼의 표징이라고 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불에서 또한 생활하신 하느님의 표징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하느님이 빛이시며 아무 어둠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마치 불이 빛을 발하듯이 하느님은 진리를 발하신다. 영혼은, 마치 눈이 빛을 봄으로써 불과 하나가 되듯,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불은 또한 열을 발한다. 하느님도 것처럼 온정의 선을 베푸신다. 따라서 하느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그 선으로 하여 마치 손과 얼굴이 더운 기운을 받아 불과 하나가 되듯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불 자체는 그대로 순전하고 고귀하게 머문다. 그것은 하느님에 관해 “미치지 못할 저 빛 속에 계시다”고 한 말씀대로이다.

빛나는 뜨거운 불길이며, 너야말로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상이요다. 이제 우리는 부활 밤에 부활초가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축성되는 그 까닭을 환히 깨닫게 되었다. 부제가 촛불을 켜들고 “그리스도의 광명”을 환호하면 성당 안의 모든 초를 곧 그 불로 켜으로써 살아 계신 하느님의 빛이 모든 곳에 비치고 그 열기가 곳곳에 미치게 하는 뜻을 우리는 깨치게 된 것이다.

▶ 사순특강 및 십자가의 길 안내

제3강의 주제 : 십자가, 수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는 길

3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3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제4강의 주제 : 부활, 새로운 창조

4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제5강의 주제 : 기도, 신앙인의 숨

4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 50분 강의 후 종교음악 감상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요셉회 모임

일시 : 3월 2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반장 월례 모임

일시 : 3월 2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2025년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일시 : 3월 30일(주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장소 : 성전

대상 : 행동단원, 협조단원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2025/2026 회계년도 교무금 약정 캠페인

성당의 시설유지 및 보수, 사목에 필요한 경비,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2세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모든 신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는 2025/2026 회계년도 교무금 약정 캠페인을 실시하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기간 : 3월 23일 - 4월 20일

1) 각 가정에 약정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사무실에도 약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약정서 기입 후 성당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 또는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 문자, 성당카톡으로 전송해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 103skccusa@gmail.com

문자/카톡 : 310-326-4350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3,180.00
주일헌금 \$	2,739.00
합 계 \$	5,919.00

강순복	김상기	김원호	김찬구	김현정	박완철	박정화
박진숙	박토니	손세호	손춘화	신순철	오수인	이동균
이상덕	이성희	이정수	이주창	정일선	조희남	최미열